

“16강 탈락 국민들에게 죄송... 선수들 미래 지켜봐달라”

“알제리전 큰 아쉬움... 거취문제 어려운 결정”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브라질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홍 감독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회견을 하고 “월드컵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부족해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는 만큼 남은 것이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을 노렸지만 조별리그에서 1무2패로 탈락한 한국 대표팀의 이날 입국장에는 취재진과 축구 관계자, 출입국 여행객과 대표팀을 마중 나온 팬 등 약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일부 팬은 대표팀의 부진을 질타하며 호박맛 및 사탕을 던지는 등 항의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며 “비행기를 오래 타고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홍명보 감독 일문일답

-대회를 마친 소감은.

▲월드컵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부족해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남은 것이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래가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 팀에 들어가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하는 점 등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면.

▲월드컵 기간에 뭘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다만 역시 알제리와의 두 번째 경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

는데 그 경기가 결국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거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피곤하고 정신도 없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2015년 1월 아시안컵에 대한 구상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월드컵 결과를 바탕으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제 탓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H조 꼴찌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책임 통감”

준비 부족해 16강 탈락...아픈 기억 빨리 잊겠다

홍명보호에서 ‘군계일학’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22·레버쿠젠)이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홍명보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최악의 졸전 끝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곧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손흥민은 “나의 첫 월드컵인데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어렵다. 이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구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대표팀이지만 손흥민의 고군분투만큼은 칭찬을 받았다. 그는 알제리전에서 0-3으로 뒤지던 후반 초반 추격의 불씨를

만기는 만회골이자 자신의 월드컵 데뷔골을 쏘아올렸다. 공격 세부 전술이 실종되다시피 한 대표팀에서 공세를 거의 혼자 책임지다시피 하며 투지를 불살랐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슬프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못 내온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팀의 부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브라질이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높았다”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왔고 16강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월드컵에서는 잘 준비한 팀이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준비가 잘 안됐다는 점은 성적을 보면 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주영, 새 팀 물색

아스널 방출에 무적...유럽에 잔류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고개를 숙인 홍명보호의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29·아스널)이 유럽 잔류에 초점을 맞추고 팀을 물색중이다.

박주영의 에이전트인 김동호 DH스포츠 사장은 30일 “박주영은 일단 국내에 머물면서 쉬 예정”이라면서 “외국 에이전트들이 팀을 찾아 협상이 진행되면 바로 그쪽으로 출국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주영은 이날까지는 잉글랜드 아스널 소속이다. 아스널이 최근 완전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무적 선수’가 된다.

박주영은 복수의 유럽 에이전트에게 새 소속팀을 물색하도록 위임장을 발부해둔 상태. 일단은 유럽 잔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은 2011-2012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모나코에서 아스널로 이적했다.

그러나 아르센 벵거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뛰지 못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셀타 비고,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왓퍼드에 임대되기도 했으나 그의 부진은 계속됐다. 결국 아스널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벨기에전이 열리는 날 ‘완전결별’을 발표했다. 이후 박주영이 K리그로 유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박주영은 일단 유럽에 남아 자신의 진가를 다시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은 소속팀에서의 부진에도 한국 축구대표팀에 복귀해 지난 3월 그리스와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알제리와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는 선발 출전, 슈팅 1개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그리스 대표팀 “보너스로 훈련센터 건축을”

카메룬 대통령 “경기중 몸싸움 선수들 조사”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보너스를 사양하면서 그 돈으로 대표팀의 새로운 훈련센터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스의 ‘그리크 리포터’는 자국 선수들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을 달성하고 나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선수들의 서명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선수들은 이 편지에서 “우리는 보너스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만을 위해 경기한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부지를 마련해 우리 국가대표팀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선수들의 이러한 요청은 카메룬과 가나 월드컵 보너스를 두고 잡음을 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록 코스타리카에 승부차기 끝에 패해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리크 리포터’는 진정한 영웅들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치켜세웠다.

○...지난 29일(한국시간) 열린 월드컵 브라질과 칠레 간 16강 경기가 생중계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사상 최대인 1630만 건의 트윗수를 기록했다고 트위터 측이 30일 밝혔다.

특히 칠레팀 선수가 승부키를 실수했을 때 분당 38만8985건의 트윗이 기록됐는데, 이는 슈퍼볼 당시의 기록 38만2000건을 초과하는 것이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네이마르가 가장 많이 거론돼 슈퍼스타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내부 갈등 끝에 브라질월드컵 조별예선에서 탈락한 카메룬과 가나 대표팀이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30일(한국시간) “카메룬과 가나가 월드컵 조기 탈락의 아픔을 씻어낼 틈도 없이 조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폴 비아 카메룬 대통령은 수상에게 “한 달 내로 대표팀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A조에 속한 카메룬은 1득점 9실점의 치욕적인 경기 내용으로 3패를 당하고 조 최하위에 그쳤다. 0-4로 패한 크로아티아와 경기에서는 브누아 아수에코토(웁스파크 레인저스)와 벤자맹 무랑조(AS낭시)가 경기 중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도 체육부 장관을 해임하며 “대표팀에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가나도 주축 선수 쉐리 몬타리(AC밀렌)와 케빈프린스 보아텡(삼케04)이 협회 직원, 크웨시 아피아 감독과 충돌했고, 포르투갈과의 조별예선 최종전에 나서지 않았다. 가나는 1무 2패로 G조 최하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8강 느낌 처음이야”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29일(현지시간) 열린 월드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그리스를 물리치고 사상 첫 8강에 오르는 선수들이 감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